

## 발해 상경성(上京城) 위치에 관한 재고(再考)

김영섭  
(충원대학교 박물관)

### <목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발해 상경성 위치 검토
- IV. 결론

### 【연구요약】

현재 발해 상경용천부는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남쪽 발해진(渤海鎮)의 고성으로 고증한다. 그러나 발해진은 과거 ‘동경성진(東京城鎮)’에 속했는데, 정확히 언제부 터인지 알 수 없으나 지역민은 발해진 고성을 동경성으로 불러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단편적인 추측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문헌 자료나 발굴 조사 결과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문헌 자료를 재검토하여 발해 상경용천부의 위치를 다시 고증하면서, 발해진 고성이 왜 ‘동경성진’으로 불렸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주제어】

발해, 상경용천부, 홀한주, 동경용원부, 정천군

## I. 서론

발해는 중앙 및 지방제도로써 ‘오경제(五京制)’를 실시했다. 발해의 오경은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 · ‘중경현덕부(中京顯德府)’ · ‘동경용원부(東京龍原府)’ · ‘서경압록부(西京鴨綠府)’ · ‘남경남해부(南京南海府)’를 말한다. 발해의 오경은 발해의 강역(疆域)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발해 대조영은 698년 동모산(東牟山)을 도성(都城)으로 삼아 발해를 건국했는데, 2대 무왕(武王) 때 후에 중경현덕부로 개칭되는 현주(顯州)로 도성을 옮겼다. 3대 문왕(文王) 때인 756년 상경용천부로 천도했다가 문왕 말년에 다시 동경용원부로 도성을 옮겼다. 그리고 5대 성왕(成王) 때인 793년 무렵 다시 상경용천부로 도성을 옮겼고, 상경용천부는 발해가 멸망하는 926년까지 발해의 도성이 되었다.

상경용천부 위치는 현재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寧安市) 서남쪽 발해진(渤海鎮)의 고성(古城)으로 본다. 이 고성은 평탄한 분지 가운데에 위치하며, 성의 동벽과 남벽 약 1~3km 밖으로 목단강(牡丹江)이 휘돌아 흐르고 있다. 1911년 일본의 시라토리(白鳥)는 이곳을 방문해 연화문 와당 · 보상화문(寶相華文) 방전(方塘) 등을 수집하고, 방전이 신라 출토인 것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발해 시기로 추정했다. 1926년 일본의 도리야마(鳥山)도 이곳을 방문해 연화 와당 · 명문 기와 조각 · 녹유 치미(鷄尾) 조각 등을 수집했다. 그리고 1931년 하얼빈 박물관에 있던 러시아의 포노소프(B.B. Ponosoff) 등도 조사했는데, 기와 조각 외에 고성 주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진 전불(塼佛) 잔편 등을 수집했으며,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남겼다. 이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동아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가 1933년과 1934년 본격적인 조사발굴을 시행했고, 그 결과 발해 시기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발해진 고성 지역은 일본 동아고고학회 발굴 이전부터 발해의 상경용천부로 추정되었다. 청나라의 조정걸(曹廷杰)은 발해진 고성을 금나라의 상경회령부(上京會寧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나라 상경회령부는 현재 하얼빈시 동남쪽에 있는 백성(白城)이고, 발해진의 고성은 발해 상경용천부라고 말한다.<sup>1)</sup> 조선 후기의 유득공(柳得恭)도 발해 상경용천부를 현재 중국 영안시 서쪽의 영고탑(寧古塔)으로 추정했다.<sup>2)</sup> 이들 주장은 일본 동아고고학회의 조사발굴과 그 이후 계속된 조사발굴 결과로 뒷받침되었고, 현재 발해진 고성은 발해 상경용천부로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성 지역은 과거 동경성진(東京城鎮)으로 불렸다가 최근 발해진으로 개칭되었다. 언제부터 발해진 고성을 ‘동경성’이라고 불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발해진 고성을 ‘동경성’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해 상경용천부가 확실하다는 발해진 고성을 왜 지역민은 ‘동경성’으로 불렀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런 의문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 단편적인 추측만 하고 있다.

1) 曹廷杰, 『東三省與地圖說』 金會寧府攷海古勒白城附

2) 柳得恭, 『渤海考』 地理考 五京

其五京之制 上京龍泉府者 今之寧古塔也 中京顯德府者 今之吉林也 東京龍原府者 今之鳳凰城也 南京南海府者 今之海城縣也 西京鴨 府者 今未可考 而當在鴨綠江近處.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발해진 고성을 상경용천부로 보는 근거 등과 발해진 고성을 ‘동경성’으로 불린 이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발해 상경용천부 위치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발해진 고성을 발해 상경용천부로 고증하는 근거를 살펴보겠다.

① 『구당서』 발해전  
예종 선천 2년에 낭장 최흔을 보내어 조영을 책봉하여 좌효위원외대장군 발해군왕으로 삼고, 아울러 거느리고 있는 지역을 흘한주(忽汗州)로 삼아서 흘한주도독의 직을 더 주었다.<sup>3)</sup>

② 『신당서』 발해전  
천보 말년에 흠무(欽茂)가 도읍을 상경으로 옮기니, 옛 도읍지에서 3백리 떨어진 흘한하(忽汗河) 동쪽이다.<sup>4)</sup>

③ 가탐 『도리기』  
도호부에서 동북으로 옛 개모, 신성에 이르고, 또 발해 장령부를 지나, 1500리에 이르르면 발해 왕성이고, 성은 흘한해(忽汗海)에 임하는데, 그 서남 삼십리에 옛 속신성이 있고, 그 북쪽은 덕리진을 지나며, 남으로 흑상말갈이 천리에 있다.<sup>5)</sup>

이들 기록을 통해 발해 상경용천부는 ‘흘한하’ 또는 ‘흘한해’에 임하고 ‘흘한주’라고도 불렸으며, 그 위치는 흘한하 동쪽으로 고증한다.

『흠정 만류원류고(欽定 滿洲源流古)』는 “흘한하는 지금의 영고탑(寧古塔) ‘호이합하(呼爾哈河)’이며, 호이합하는 영고탑성 서남 1백 리에 있는 ‘필이동호(畢爾騰湖)’로 들어간다.”라고 적고 있다.<sup>6)</sup> 영고탑은 신성(新城)과 구성(舊城)이 있는데, 신성은 현재 흑룡강성 영안시 시내로, 구성은 영안시 서쪽의 해림시(海林市) 장정진(長汀鎮)으로 고증한다. 청나라는 1666년 구성에서 신성으로 영고탑을 옮겼다. 『흠정 만류원류고』

3) 『舊唐書』卷一百九十九 下 列傳 一百四十九 下 北狄 渤海靺鞨  
睿宗先天二年，遣郎將崔忻册拜祚榮爲左驍衛員外大將軍·渤海郡王，仍以其所統爲忽汗州，加授忽汗州都督。

4) 『新唐書』卷二百十九 列傳 一百四十四 北狄 渤海  
寶末，欽茂徙上京直舊國三百里忽汗河之東，詔帝世，朝獻者二十九。

5) 『新唐書』卷四十三 下 志 第三十三 下 地理 七 河  
自都護府東北經古蓋牟，新城，又經渤海長嶺府，千五百里至渤海王城，城臨忽汗海，其西南三十里有古肅慎城，其北經德理鎮，至南黑水靺鞨千里。

6) 『欽定 滿洲源流考』卷十 疆域 三 忽汗州 忽汗城  
大欽茂又東徙三百里 直忽汗河之東 今寧古塔呼爾哈河也 呼爾哈河匯 於寧古塔城 西南一百里之畢爾騰湖

은 1778년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편찬 당시 영고탑은 신성인 현재의 흑룡강성 영안시 시내에 있었다. 따라서 영고탑 ‘호이합하’는 현재 영안시를 흐르는 ‘목단강(牧丹江)’이라고 고증할 수 있고, ‘필이동호(畢爾騰湖)’는 영안시 서남쪽에 있는 ‘경박호(鏡泊湖)’로 고증할 수 있다.



<그림 1> 경박호

따라서 ‘흘한하’는 목단강으로, ‘흘한해’는 경박호로 고증되므로, 발해 상경성은 이 목단강 유역에서 찾을 수 있다. 목단강 유역에서 도성의 규모를 가진 성곽 유적은 발해진 고성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발해진 고성은 발해 상경용천부로 고증되었다.<sup>7)</sup>

한편 흘한하가 목단강으로 부르게 된 이유에 관해 청나라의 조정걸은 시대에 따라 목단강을 흘한하, 호이객(瑚爾喀), 화라갈(和羅噶), 포이갈(布爾噶), 호이객(虎爾喀) 등으로 불렸으며, 모두 음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한다.<sup>8)</sup>

이처럼 기록 연구로 발해 상경용천부로 고증된 발해진 고성은, 발굴 조사 결과가 더해지면서 현재 학계는 발해진 고성을 발해 상경용천부로 확정 짓고 있다. 발해진 고성에 관한 본격적인 학술 발굴조사는 1934년과 1935년 일본 동아고고학회가 처음 시행했으며, 일본 동아고고학회는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내용을 『東京城』이란 보고서로 편찬했다. 그리고 1948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7) 南滿洲鐵道株式會社，『滿洲歷史地理』第壹卷，1913，407-441。

8) 廷杰，『東三省與地圖說』牧丹江考  
牧丹江唐作忽汗，河金稱瑚爾喀，又訛和羅噶，里改通志謂烏蘇江卽和羅噶江非也，又稱布爾噶原作僕幹，國初稱虎爾喀，又作呼爾喀呼爾客庫爾喀，今稱牧丹江皆音之轉也。



<그림 2> 발해진 고성 유지 표시도

발해진 고성은 크게 외성(外城), 내성(內城), 궁성(宮城)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성 평면은 동서로 긴 사각형이고, 속은 둘로 쌓고 겹은 흙으로 쌓았다. 외성 총 둘레는 약 16,296.5m로, 동벽·서벽·남벽은 모두 직선으로 쌓여있고, 북벽은 가운데가 북쪽으로 튀어나와凸 글자 모양을 하고 있다. 외성 밖에 해자를 돌렸다. 내성은 남북으로 긴 사각형 형태로, 동·서·남쪽에 각각 성문을 두었으며, 내성 둘레는 약 4,400m이다. 궁성은 남북으로 긴 사각형 형태로 궁전터 5개가 있다. 궁전터 외에도 문지, 관청 터, 절터 등이 발견되었고, 발해 시기의 기와나 벽돌이 출토됐다.<sup>9)</sup>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발해진 고성은 국가 도성에 해당하는 규모와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며, 녹유 치미(鷄尾) 등 수준 높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발해진 고성은 발해 상경용천부임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발해 상경용천부의 이칭(異稱)인 '홀한주'를 발해 상경용천부가 아닌 곳으로 기록한 역사가 있다.

④ 『요사』 동경도 동경 요양부  
홀한주는 곧 평양성이며, 중경현덕부로 불렸다.<sup>10)</sup>

위 기록을 보면 홀한주는 평양성으로 불렸는데, 이 평양성은 다른 『요사』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 천도한 평양성이며, 요나라 동경 요양부로, 현재 요나라 동경은 중국 요령성 요양시(遼陽市) 일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홀한주는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성이자 발해 중경현덕부 지역인 현재 중국 요령성 요양시 일대

9) 송기호, 「발해 城址의 조사와 연구」, 『한국사론』 19, 국사편찬위원회, 1989.  
정영진, 「渤海의 강역과 五京의 위치」, 『한국사론』 34, 국사편찬위원회, 2002.  
10) 『遼史』 卷三十八 志 第八 地理志 二 東京道 東京 遼陽府  
忽汗州即故平壤城也, 號中京顯德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료 ①을 다시 보면, 당나라가 713년 홀한주로 삼은 지역은 대조영이 차지하고 있던 곳으로, 대조영은 건국 당시 동모산 일대를 도성으로 삼았다. 발해 상경성으로 천도한 시기는 3대 발해 문왕 시기인 753년 무렵이다. 따라서 홀한주 지역이 발해 상경용천부라고 단언할 수 없다.

더불어 홀한하를 '목단강'으로 고증한 근거인 『흙정 만류원류고』는 청나라 중기에 편찬된 것으로, 현재의 '목단강'을 홀한하로 부른 시기는 청나라 중기 이후가 확실하다. 반면 청나라 중기 이전 목단강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록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청나라 조정걸이 홀한하의 음 변화에 관해 의견을 밝혔지만, 현재 목단강을 홀한하로 부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해 시기 홀한하가 현재 목단강이라고 확실할 수 없고, 같은 이름의 강이 존재할 가능성이나 주민 이동 등으로 그 이름도 옮겨와 목단강을 언제부터 홀한하로 불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⑤ 『요사』 상경도 부여현

본래 용천부였다. 태조가 발해 부여현에서 항복한 민호를 이곳에 옮겨 살게 하였고, 세종 때 현을 두었다.<sup>11)</sup>

위 기록에 따르면, 요나라 부여현이 본래 발해 용천부이었는데 요나라 태조가 부여현의 주민들을 살게 하면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요나라 부여현은 현재 길림성 장춘시 농안현(農安縣)으로 고증한다. 현재 농안현에는 요나라 시기에 세워진 불탑인 '요탑(遼塔)'이 있다. 이 농안현 요탑은 길림성 지역 내 유일한 것으로, 요탑이 세워진 곳은 정치·군사·행정 등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sup>12)</sup>

요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발해 영토 일부를 차지했으므로, 『요사』 지리지에는 발해 지명이 자주 등장한다. 사료 ④와 ⑤에 발해 중경현덕부와 상경용천부 위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만, 선행연구는 『요사』 기록을 전혀 인용하거나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요사』와 『금사(金史)』가 원나라 시기 약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리되어 편찬되었으므로, 그 기록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록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중국에서 요나라나 금나라 역사를 연구하는데 『요사』와 『금사』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점은 설명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역사서는 그 기록 모두가 정확하다고 자신할 수 없어, 다른 역사서의 기록과 교차 검증 과정을 거쳐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발해 오경의 위치를 고증함에 『요사』도 다른 역사서와 교차 검증 과정을 통해 고려해야 하는 역사서라고 생각한다.

11) 『遼史』 卷三十七 志 第七 地理志 一 上京道  
扶餘縣, 本龍泉府, 太祖遷渤海扶餘縣降戶於此, 世宗置縣.  
12) 정영호 외 3명, 『中國 遼塔』, 학연문화사, 2019.



<그림 3> 농안현 요탑

고성이 있는 발해진은 과거 동경성진(東京城鎮)으로 불렸다. 오래전부터 지역민들은 발해진 고성을 ‘동경성’으로 불렀음을 보여준다. 마쓰이(松井)는 요나라 동경이었던 요양을 금나라 초기에도 그대로 동경으로 불렀는데, 1683년 남경으로 고치고, 다시 해릉왕(海陵王) 시기에 동경으로 고쳤기 때문에, 요양이 남경으로 불렸던 시기 발해진 고성을 동경으로 불렀다고 추정했다.<sup>13)</sup> 방학봉은 요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킨 후, 상경용천부를 ‘천복성(天福城)’으로 고치고 만아들 황태자 배(倍)를 인황왕(人皇王)으로 삼아 ‘동단국(東丹國)’을 세웠는데, 이때 상경용천부를 ‘동단국의 도성’이란 의미로 ‘東京’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했다.<sup>14)</sup>



<그림 4> 동경성진 기차역

하지만 현재 발굴조사 결과에서 요나라 또는 금나라 시기로 볼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발해진 고성의 첫 발굴조사 결과보고서인 동아고고학회의 『동경성』에서도 금나라 시기의 유적이나 유물이 나오지 않는 것에 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sup>15)</sup>

선행연구는 발해 상경용천부를 현재 흑룡강성 영안시 남서쪽 발해진의 고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사 기록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발해의 행정 명칭이나 권역이 잘 기록된 『요사』 지리지 기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편찬 시기가 짧아 그 기록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고성이 있는 발해진은 과거 동경성진으로 불렸는데, 그러한 이유에 관해 명확한 답변도 없다.

따라서 발해 상경용천부 위치에 관한 역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그 위치에 관해 다시 고증할 필요가 있다.

### Ⅲ. 발해 상경성 위치 검토

발해 상경용천부는 사료 ⑤를 근거로 한다면 요나라 부여현이었던 현재의 길림성 장춘시 농안현 일대이다. 그러나 이를 교차 검증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발해 상경성 위치의 명확한 위치 고증에 앞서, 발해진 고성이 과연 발해 상경용천부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 ⑥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 정천군

정천군(井泉郡)은 본래 고구려 천정군(泉井郡)이었는데, 문무왕(文武王) 21년에 이를 취하였다.<sup>16)</sup>

#### ⑦ 『삼국사기』 가탐 『고금군국지』 기록

가탐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에 이르기를 “발해국의 남해 · 압록 · 부여 · 책성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 천정군(泉井郡)에서 책성부(柵城府)에 이르기까지 무릇 39역(驛)이 있다.”라고 한다.<sup>17)</sup>

#### ⑧ 『신당서』 북적열전 발해

예맥의 옛 땅으로 동경을 삼으니, 용원부로, 책성부(柵城府)라고도 한다.<sup>18)</sup>

15) 東亞考古學會, 『東京城』東方考古學叢刊: 第5冊, 東京, 註3, 4쪽.

16) 『三國史記』卷 第三十五 雜志 第四 地理 新羅 井泉郡, 本高句麗泉井郡, 文武王二十一年取之. 景德王改名.

17) 『三國史記』卷 第三十七 雜志 第六 賈耽古今郡國志云, “渤海國 南海·鴨綠·扶餘·柵城四府, 並是高句麗舊地也. 自新羅泉井郡, 至柵城府, 凡三十九驛.”

18) 『新唐書』卷二百一十九 列傳 一百四十四 北狄 渤海 獺狍故地爲東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13) 『滿洲歷史地理』第二卷 第二編 許九宗の行程線に遼金時代の滿洲交通路, 159-162쪽.

14) 방학봉, 「발해 상경용천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 『先史와 古代』2, 한국고대학회, 1992, 162-163.



위의 사료를 종합하면, 신라는 681년 고구려 천정군을 빼앗아 정천군을 설치했는데, 신라 정천군에서 발해국의 책성부까지 39역이 있었고, 발해 책성부는 동경용원부의 이칭(異稱)이다.

현재 신라 정천군은 함경남도 문천군(文川郡) 덕원면(德源面: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 덕원동)일대로 고증하며, 발해 동경용원부는 덕원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琿春市)로 고증한다.



<그림 5> 현재 발해 5경 고증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해 남경남해부를 덕원과 훈춘시 사이인 함흥시(咸興市) 일대로 고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료 ⑦은 덕원에서 더 가까운 남경남해부가 아니라 더 먼 동경용원부와와의 거리를 기록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사료 ⑦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신라와 발해는 정천과 동경용원부(책성부)를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해 오경 위치에 관한 인식으로 본다면, 신라와 발해는 정천과 남경남해부를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정천과 남경남해부 사이의 거리를 기록함이 더 자연스럽다. 이것은 정천군을 비롯한 지명에 대한 고증을 다시 생각할 이유가 된다.

중국 연길(延吉) 조선족자치주의 용정시(龍井市) 거룡공원(巨龍公園)에 용정시 지명의 유래를 적은 탑이 세워져 있다. 탑에는 “龍井地名起源之井泉” 즉 “용정이란 지명은 정천에서 기원했다”라고 쓰여 있다. 이 탑은 1934년 용정 지명 기원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문화대혁명 당시 파괴되었는데, 1997년 다시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6> 용정시 지명유래 우물과 지명유래 비석

이 용정시 비의 내용에 의하면, 지역민들이 용정시 일대를 과거에 ‘정천’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발해진 고성을 ‘동경성’으로 불려 왔던 것처럼, 그 지역민의 경험과 지식이 세대에 걸쳐 전승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천’을 신라 정천군과 연결 지어 본다면, 신라 정천군은 현재 원산시 일대가 아니라 두만강 건너 용정시 일대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신라 북계는 서쪽의 대동강 이남에서 동쪽 원산만 일대를 잇는 선이다. 신라 북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글은 신라 북계보다 발해 상경용천부 위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추후로 미루겠다.

어쨌든 신라 정천군이 현재 연길 조선족자치주 용정시 일대라면, 여기에서 39역 떨어진 곳에 발해 동경용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9역의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없지만, 용정시 일대에서 도성 규모를 가진 성곽 유적은 발해진 고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발해 오경은 모두 도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당 지역의 정치·행정·군사의 중심지였다. 더구나 발해 동경용원부는 짧은 기간이지만 발해 도성이었던 곳이다. 그렇다면 발해진 고성이 발해의 ‘동경용원부’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신당서』에 따르면 “용원의 동남쪽 연해는 일본도이다.”라는 기록이 있다.<sup>19)</sup> 발해진 고성 동남쪽은 두만강 유역으로 동해와 맞닿아 있다. 현재 강릉 동해항에서 일본 돗토리현(鳥取県)을 가는 국제 항로가 존재하는 점으로 볼 때, 과거 발해 시기에 동해 북쪽 지역에서 동해를 지나 일본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 『新唐書』卷二百一十九 列傳 一百四十四 北狄 渤海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



<그림 7> 동해안 국제항로

발해진 고성(성)이 발해 동경용원부였다면, 발해진 고성을 지역민들이 동경성으로 불린 이유도 분명해진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발해 상경용천부로 알려진 발해진 고성(성)은 발해 동경용원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발해 상경용천부는 『요사』의 기록대로 현재의 중국 길림성 장춘시 농안현 일대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른 기록과의 교차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 IV. 결론

현재 발해 상경용천부는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남쪽 발해진의 고성으로 고증한다. 『구당서』와 『신당서』 지리지가 인용한 가탐의 「도리기」를 보면, 발해 상경용천부는 ‘홀한하’ 또는 ‘홀한해’에 임해 ‘홀한주’로 불렸다. 그리고 『흙정 만주원류고』에 따르면, ‘홀한하’는 지금의 목단강이며, ‘홀한해’는 지금의 경박호로 고증된다. 발해진 고성은 경박호 북쪽에 위치하며 서쪽과 북쪽으로 목단강이 휘돌아 나간다. 또한 국가 도성에 걸맞은 성곽 크기와 특징, 수준 높은 유물의 다량 출토 등 발굴조사 결과로 볼 때 발해진 도성은 상경용천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선행연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발해 관련 지명과 그 유래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한 『요사』 지리지 내용을 발해 상경용천부 위치를 고증하는 데 제외하고 있다. 더불어 고성(성)이 있는 발해진 주변 지역이 ‘동경성진(東京城鎭)’으로 불리는 이유에 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재 발해 상경용천부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요사』에 따르면 발해 상경용천부는 요나라 부여현으로, 현재 길림성 장춘시 농안현 일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역사 기록과의 교차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현재 발해 상경용천부라고 하는 발해진 고성(성)은 신라 정천군과 국경을 두고 있던 발해 동경용원부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연길 조선족자치주 용정시에 남아있는 용정시 지명 유래비에 따르면, 용정시 일대는 신라 정천군 일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 정천군에서 39역 떨어진 곳에 발해 동경용원부가 있었다. 용정시 일대에서 도성 규모의 성곽 유적은 발해진 고성(성)이 유일하다. 따라서 발해진 고성(성)은 발해 동경용원부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발해진 고성을 상경성이 아닌 동경성으로 부른 이유가 명확해진다.

본 글의 목적은 발해 상경용천부 위치를 명확히 고증하고자 하는 것보다 시론적(試論的)으로 현재 발해 상경용천부 위치에 관한 연구나 고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으로 『요사』를 비롯한 여러 지리지나 역사 자료를 통해 보완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三國史記』  
『舊唐書』  
『新唐書』  
『遼史』  
『欽定 滿洲源流考』  
『元一統志』  
『明一統志』  
『清一統志』  
『渤海考』  
『朝鮮歷史地理』  
『滿洲歷史地理』  
東亞考古學會, 『東京城』東方考古學叢刊: 第5冊, 東京.

(논문)  
강성산, 「발해 5경 명칭 출현 시기에 관한 사료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第55輯, 고구려발해학회, 2016.  
강인옥, 「V.V. 포노소프의 발해 상경성 발굴과 동아고고학회」, 『高句麗渤海研究』 第48輯, 고구려발해학회, 2014.  
권순홍, 「발해 五京制에서 京의 의미와 五京制의 성립 시점」, 『高句麗渤海研究』 第67輯, 고구려발해학회, 2020.  
김기섭 · 김진광, 「발해의 상경 건설과 천도」, 『한국고대사연구』 45, 한국고대사학회, 2007.  
김동우, 「발해 도성과 지방통치」, 『高句麗渤海研究』 第58輯, 고구려발해학회, 2017.  
김은옥, 「발해 상경성의 발굴 및 고고연구 현황-시기에 따른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第45輯, 2013.  
방학봉, 「발해 상경용천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 『先史와 古代』 2, 한국고대학회, 1992.  
성희란, 「중국 근현대의 동북변경과 발해사 연구」, 『史叢』 102, 2021.  
송기호, 「발해 城址의 조사와 연구」, 『한국사론』 19, 국사편찬위원회, 1989.  
정영진, 「渤海の 강역과 五京의 위치」, 『한국사론』 34, 국사편찬위원회, 2002.  
황윤순, 「1998~2007년도 고고 발굴조사 보고 『발해상경성』」, 『동북아역사논총』 27호, 동북아역사재단, 2010.  
和田 清, 「渤海國地理考」, 『東洋學報』 第參拾六卷第四號, 昭和二十九年三月.

【Abstract】

Inventory of the location of Balhae Sanggyeongseong Fortress

Kim, YoungSub  
(Jungwon University Museum)

The location of the Sanggyeong Yongcheonbu, the capital of Balhae, is a clu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ve Gyeongje in Balhae as well as the river zone of Balhae. Currently, the Sanggyeong Yongcheonbu in Balhae is a ancient castle in the south of Yeongan City, Heukryonggang Province, China.

According to Gatam's Dorigi cited by the paper of Sindangseo and Sindangseo, Balhae Sanggyeongyongcheonbu was called "Holhanju" for "Holhanha" or "Holhanhae". Through various literatures, "Holhanha" is the current Mokdan River, and "Holhanhae" is the current Gyeongbak Lake. Balhaejin Goseong is located north of Gyeongbakho Lake, and the Mokdan River rotates to the west and north. He explains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apital city developed is Sanggyeongyongcheonbu, based on the results of excavation investigations such as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suitable for the national capital, the large excavation of high-quality relics, and the industrial accident of many temples.

However, there is no reasonable or valid reason for the reason why the Balhae Goseong area was called 'Donggyeongseongjin'. In addition, the "Yosa" geography records the place name and origin of Balhae in detail, but previous studies are excluded from the review.

Accordingly, the location of the Sanggyeong Yongcheonbu in Balhae was examined again with 『Yosa』 and the like as follows. Balhae Sanggyeong Yongcheonbu is likely to be Nongan County, Jangchun City, Jilin Province, China, and Balhae Goseong is likely to be Balhae Tokyo Yongwonbu.

However, this study is not intended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Sanggyeongcheonbu in Balhae, and it can be said to be poetic. In the future, we plan to supplement and study through various historical materials including 『Yosa』 .

Keywords :

Balhae, Sanggyeong Yongcheonbu, Holhanju, Tokyo Yongwonbu, Jeongcheon-gun